

SUSTAINABLE TOURISM  
THE ESG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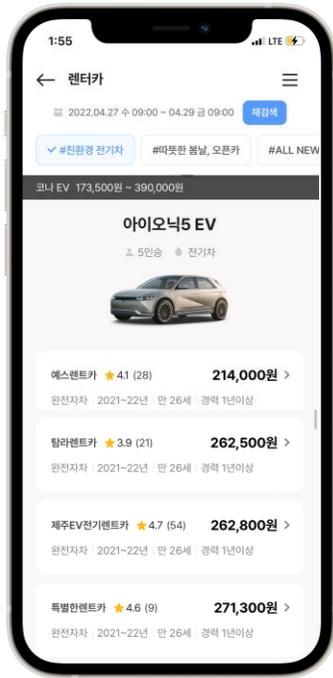
캐플릭스 윤형준 대표

# JEJUPASS

제주여행에 'AI기반 여행플랫폼' 도입을 통한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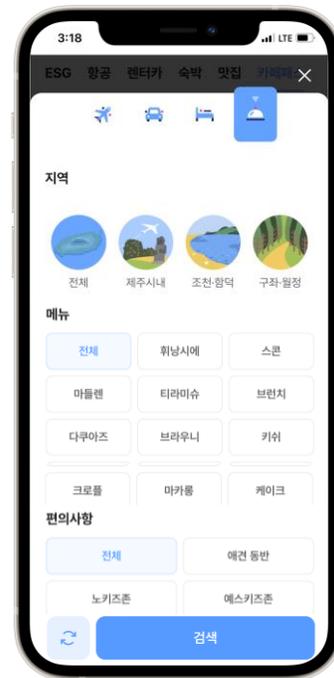
**항공**  
국내 최저가 판매,  
POI 데이터 기반의 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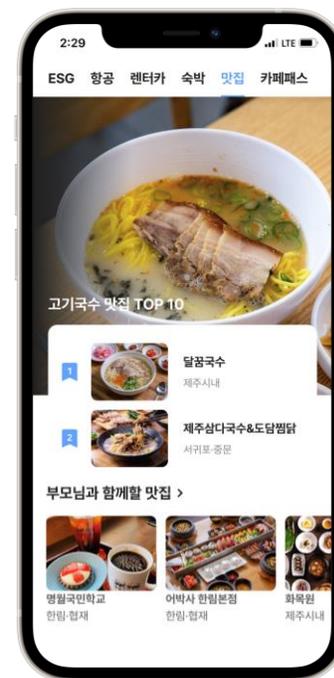
**렌터카**  
최적화된 예약 UX 제공,  
다이나믹 프라이싱 특허 기술



**숙박**  
빈집 재생 숙소 다자요 포함  
단독 판매 숙소 제공



**맛집**  
1,000여개 제휴사 기반의  
리뷰, 빅데이터 추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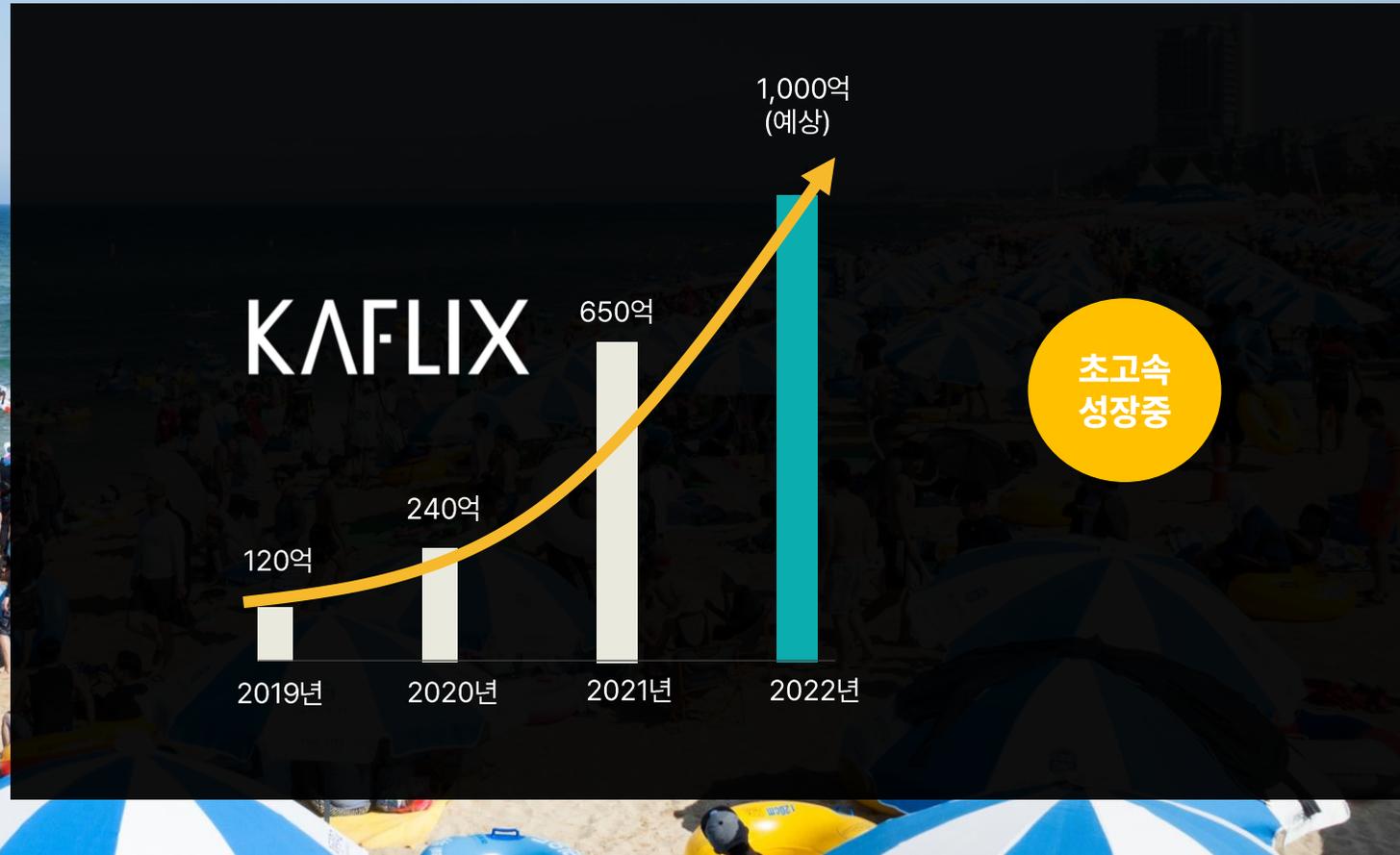


**카페패스**  
200여개 카페 구독 서비스,  
누적 사용량 40만건



**트립**  
워케이션, I.B.C.R. 등  
제주패스 오리지널 트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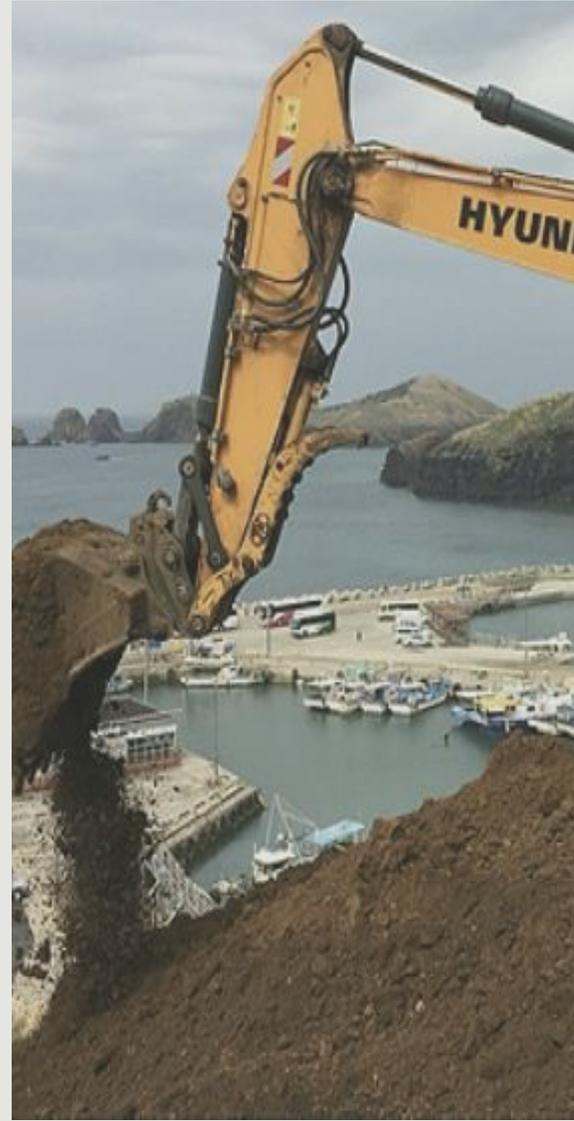
팬데믹 시대,  
오히려 제주는 많은 관광객이 찾았고  
캐플릭스의 '제주패스' 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주는  
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난개발



교통



제주의 환경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 제주패스는 2015년부터 제주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클린 앤 플라워 2015 - 2017

청소한 자리에 꽃이 피어난다는 의미의 환경 운동



CO2 프리 챌린지 2020 - 2021

전기차를 타면 1,000원씩 기부되는 캠페인. 모금 총액을 세계자연기금에 기부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 2018 - 2019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2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텀블러 사용 캠페인



쓰레기 되가져가기 2020 - 2021

여행하며 나온 쓰레기를 내가 스스로 가져가게 생분해봉투를 나눠준 캠페인



#



# No more Plastic Islands

Powered by JEJUPASS



*Make Jeju Better*

2021년, 캐플릭스는  
**더 나은 제주**를 함께 만드는  
협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 MAKE JEJU BETTER

‘더 나은 제주를 위해’

2021년 캐플릭스는 환경 뿐만 아니라  
제주의 모든 사회활동과 문제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MAKE JEJU BETTER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며  
제주의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캠페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 기부 플랫폼

여행자들이 제주의 사회단체에 매출의 1%를 기부하는 플랫폼



## 그린 앰버서더

여행자들이 서약을 통해 제주를 위한 착한 여행을 약속

**MAKE  
JEJU  
BETTER**

## 협업 프로젝트

제주도내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하여 제주 환경 문제를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



## ESG 트립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로컬 문화를 체험해보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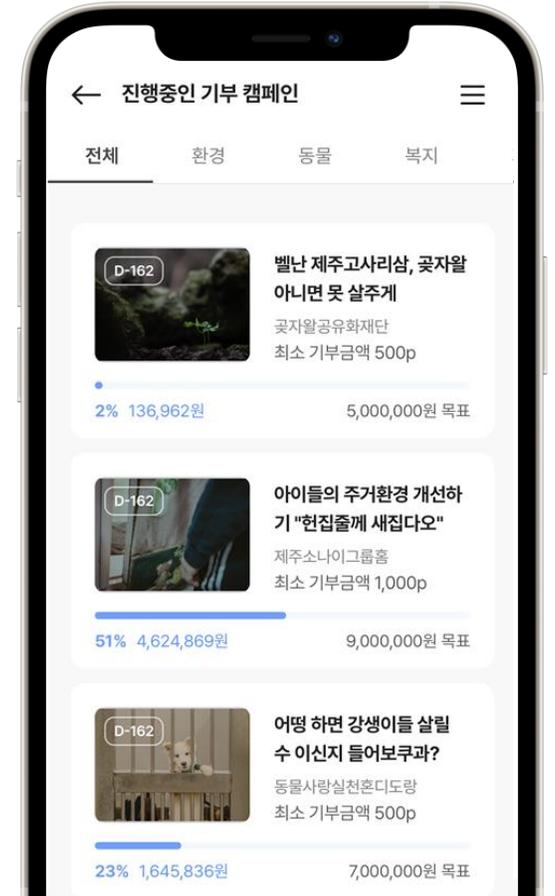
MAKE JEJU BETTER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제주패스가 만든 국내 여행업계 최초의 ESG 플랫폼입니다.

## 여행업계 최초의 기부 플랫폼

- 제주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MAKE JEJU BETTER 기부 캠페인
- 제주패스 구매금액의 1%를 기부 포인트로 부여 받아 제주를 위한 기부 캠페인에 사용 가능



MAKE JEJU B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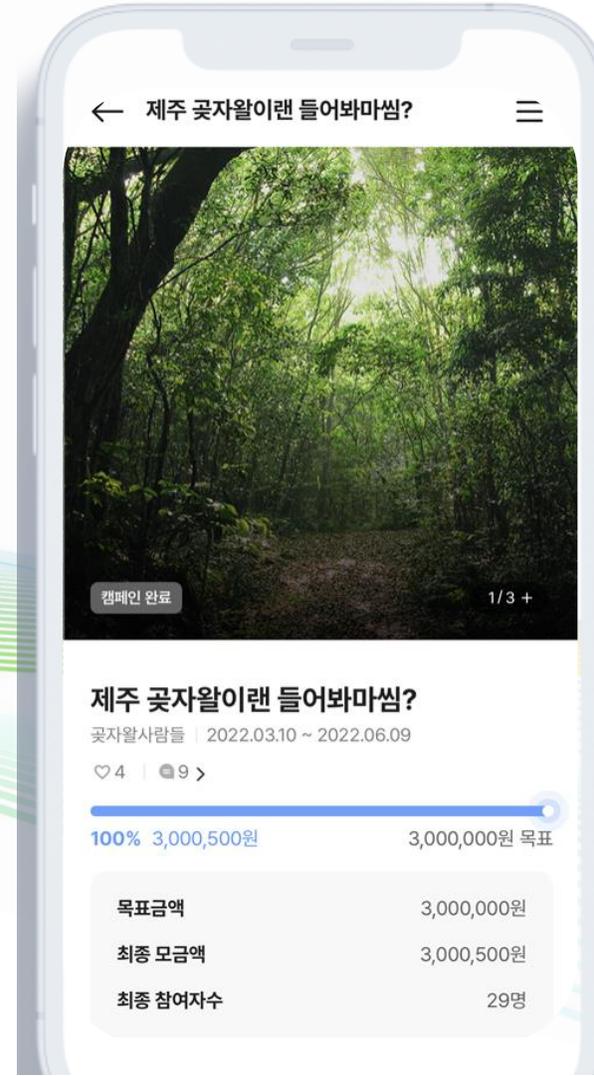


## 기부 석 달만에 모금액 2천만원 돌파

· 사단법인 꽃자왈 사람들의 '꽃자왈 보호종 조사 사업' 3백만원 모금 성료



(사)꽃자왈사람들 기부금 전달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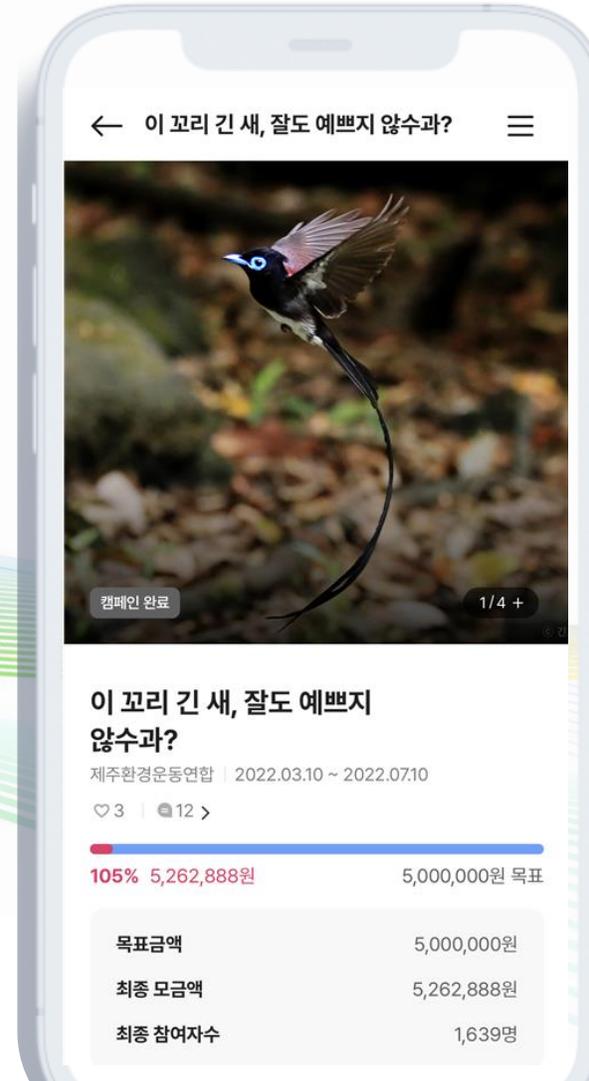


## 기부 석 달만에 모금액 2천만원 돌파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천미천과 긴꼬리딱새 보호 사업' 모금 5백만원 모금 성료



제주환경운동연합 기부금 전달식



## (사)제주올레 기부금 약정 및 업무협약식

·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올레길 발전을 위해 5년 간 1억 기부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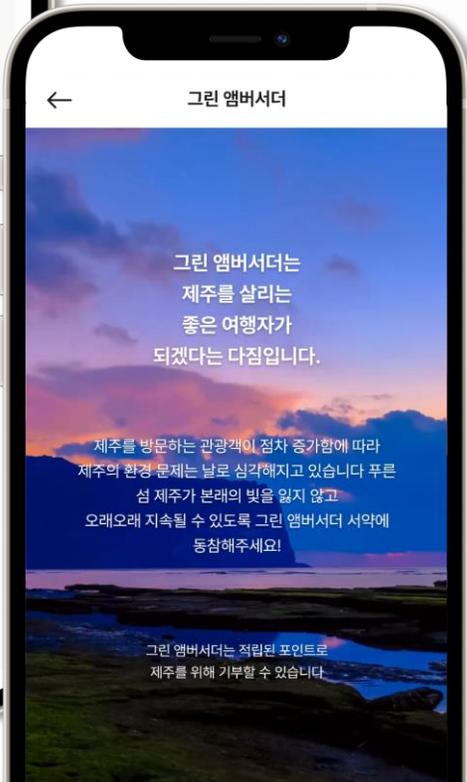


(사)제주올레 기부금 약정 및 업무협약식 사진



# 제주를 아끼는 여행자 서약 멤버십, 그린앰버서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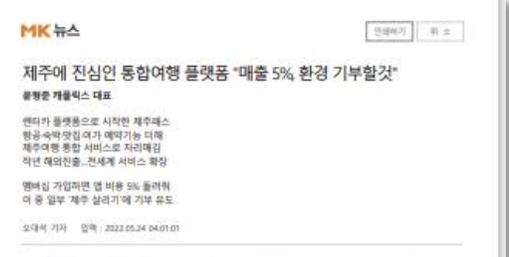
- 제주를 아끼며 여행하겠다는 서약 시, 최대 5% 적립 및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주패스의 ESG 멤버십
- 구매금액의 1%를 기부 포인트로 지급
- 3개월간 1만 2천명의 여행자들이 착한 여행에 공감하며 서약 완료



착한 여행자 그린 앰버서더 멤버십 운영 / 사진제공=제주패스

제주패스는 지난 3월, 렌터카와 항공, 숙박, 맛집, 카페 등 제주 여행 통합예약서비스 국내 여행업계 최초로 ESG 플랫폼을 마련해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지속가능한 생활 수 있도록 기부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페인은 제주 꽃자왈 보존 캠페인, 인력사 위기에 처한 제주9 캠페인, 소외계층인 아동을 위한 캠페인 등 환경, 동물, 복지 분야로 나뉘어 분야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누적 캠페인 기부금은 1천만원에 달한다. 제주패스 플랫폼 기부금 분포도는 환경 38.3%, 복지 35.0%, 동물 26.7%로 이 중에서 꽃자왈 보존 1억의 78%를 달성하며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플랫폼 캐슬릭스 대표가 최근 여행업계의 건넌 편지가 플랫폼에서 온 것 제주여행 플랫폼으로 제안한 제주패스를 지속가능한 제주 여행 속으로 만들겠다고 하고있다 (사진 제공= 캐슬릭스)

기업이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5%를 환경 보전에 기부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다. 머지간히 실적에 자신 있어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 머운주구가 기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윤형준 캐슬릭스 대표가 올해 통합 제주패스 플랫폼을 선보이며 '제주 살리기에 매출의 5%를 투입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란 이유다. 제주패스는 렌터카 플랫폼을 넘어 항공부터 숙박, 맛집, 이동수단, 다양한 여가 활동까지 예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여행 슈퍼 앱'으로 재단 강했다.

기부, 그 이상  
지속가능한 여행의 경험



## 빈집재생 프로젝트 by 다자요 X 제주패스

-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빈집을 제주다운 숙소로 재생하는 프로젝트
- **MAKE JEJU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출의 1.5%를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



**다자요** X **JEJUPASS**

하천바람집은 제주패스의 Make Jeju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매출의 1.5%는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빈집재생 프로젝트 by 다자요 X 제주패스

[ BEFORE ]



[ AFTER ]





## 필라테스 플로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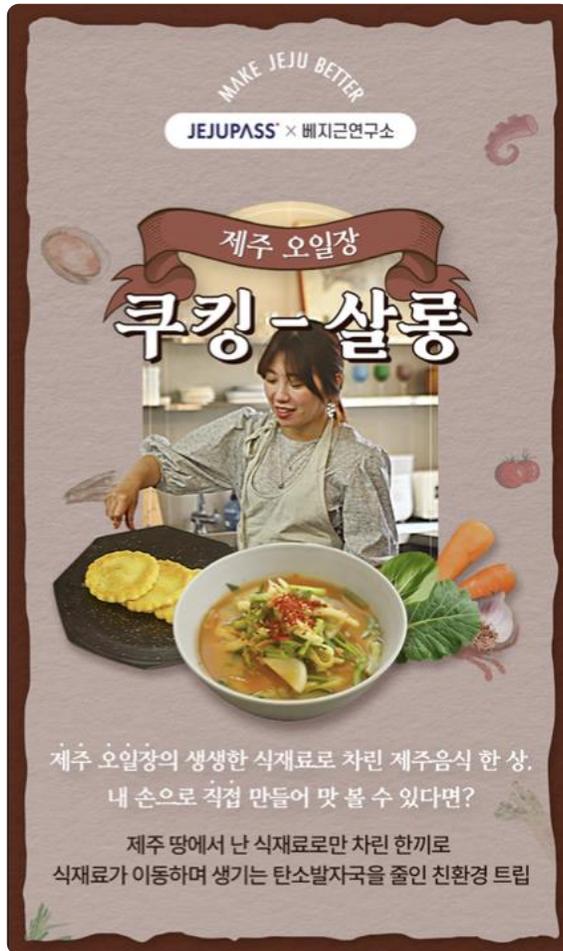
-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필라테스와 다도, 해안정화를 위한 플로깅을 결합한 프로그램
- 숨겨진 제주 곳곳의 자연을 체험하고 손길이 닿지 않아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여행





## 제주 오일장 쿠킹살롱

- 제주전통시장에서 로컬사람들과 만나고 장을 보고 현지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현지 식재료를 사용하여 유통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고 제주의 식문화를 체험해보는 여행





제주를 소비하기 보다는 제주를 소중히 하는 여행,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행,  
제주패스는 제주에 대해 진심입니다

# 제주여행의 진심

# JEJUPASS

